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6월 24일(월) 15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석유산업과 강경성 과장(02-2110-4890), 배성준 사무관(02-2110-5458),
김정운 사무관(02-2110-5456)

동북아오일허브 비전선포 및 여수저장시설 준공식 개최

- 여수에 국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저장시설 준공
-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는 2013.6.24(월) 석유공사 여수지사에서 「**동북아오일허브 비전선포 및 여수저장시설 준공식**(이하 준공식)」을 거행하였음

○ 준공식에는 **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,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, 백문현 오일허브코리아여수(이하 OKYC) 사장, 김충석 여수시장,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등 정부, 지자체, OKYC 주주사 및 지역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하였음

□ **동북아오일허브 사업**은 여수와 울산에 대규모 상업용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**한국을 동북아 석유 물류 및 금융 거래의 중심지로 육성**하겠다는 목표로, '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된 이래 지속 추진되어왔음

* '13년 새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관련내용 포함

○ 금번 준공식이 개최된 여수 저장시설은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, 총 4년의 사업기간 동안 5,170억원을

투입하여 820만배럴 규모의 **국내 최대 상업용 석유저장터미널 건설**을 완료하고 지난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음

□ 윤 장관은 준공식 치사를 통해 "**우리나라를 미국, 유럽, 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육성**"하겠다는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비전을 선포하였으며

○ 이를 위해 총 37백만배럴 규모의 **저장시설을 계획에 따라 건설**하면서 **규제완화 등을 통해 가동률을 높이고**, 이를 기반으로 '17년 상반기중 **국제석유거래소를 개설**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동북아 석유거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힘

□ 오일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석유제품의 집산, 가공 및 제조가 가능한 물류인프라를 바탕으로 석유제품의 국제적인 거래(Trading)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금융인프라 조성이 중요함

○ 따라서 오일허브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에는 석유 물류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석유거래소 설립을 통해 국제 금융거래와 각종 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어 **석유 물류와 금융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 가능**함

□ 금번 정부의 동북아오일허브 비전 선포는, 석유 저장시설 건설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기존 사업을 더욱 고도화하여, **향후 물리적 인프라 뿐만 아니라 물류/트레이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및 석유거래소 개설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여건 조성까지 확대 추진**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됨

○ 향후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**저장, 수송, 물류, 금융 등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**하면서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어 **에너지분야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상징적 사업**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* 오일허브사업의 생산유발효과 4조4647억원, 임금유발효과 6059억원, 고용유발효과 약 2만2천명, 울산지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481억원 수준으로 추정('09년 KDI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)

* 싱가포르의 오일허브 구축/운영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전체 GDP의 11.5%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

□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준공식 개최에 앞서 **윤 장관 주재로 정부, 유관기관, 오일허브사업 투자사, 정유사 등 관계자들과 석유시장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**하였음

○ 간담회에서는 산업부가 「동북아오일허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」을 발표하였으며, 참석자들은 향후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추진방향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. 끝.

첨부1 : 준공식 및 여수 저장시설 개요
첨부2 : 해외 오일허브 추진배경 및 경과
첨부3 : 「동북아오일허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」(별첨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배성준 사무관(☎ 02-2110-5458), 김정운 사무관(☎ 02-2110-545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준공식 및 여수 저장시설 개요

1. 준공식 개요

□ 일시/장소 : '13.6.24.(월) 14:55~17:11 / 여수시 석유공사 여수지사

□ 주관 : 산업통상자원부(정책간담회)/석유공사(준공식)

□ 참석자 :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여수시장, 울산부시장, 석유공사/울산항만공사 사장, 오일허브코리아여수 및 정유사 대표, 지역기관장, 지역주민 등 300여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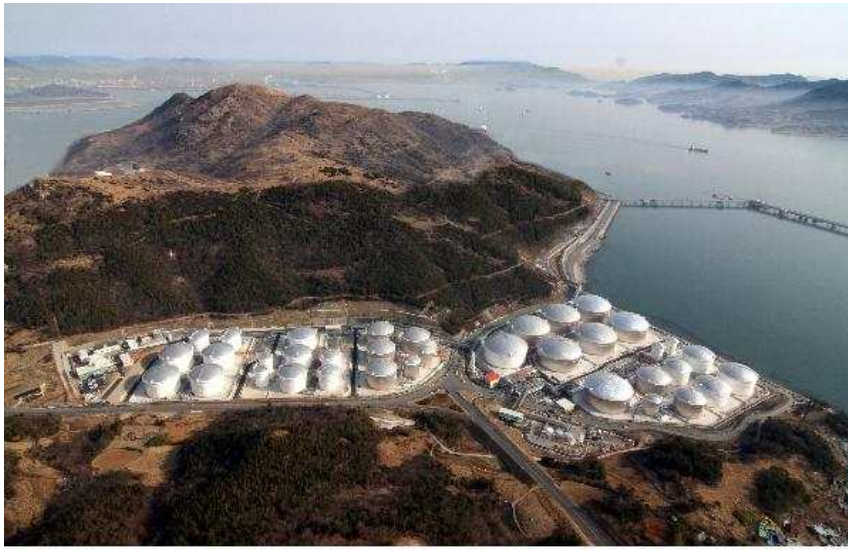
□ 행사내용 : 정책간담회, 경과보고, 유공자 표창, 동북아오일허브 비전선포, 기념석 제막 등

2. 여수 저장시설 개요

사업주체	**회사명 : 오일허브코리아 여수(주)** - **국내 6개사(74%)** : 한국석유공사(29%), SK(11%), GS(11%), 삼성물산(10%),서울라인(8%), LG상사(5%) - **해외 1개사(26%)** : 중국항공석유(26%)
사업부지	석유공사 여수기지 내 유휴부지(약 261,540㎡)
사업기간	2008~2012
시설규모	**저장시설 : 820만배럴**(탱크 36기, 원유 350만, 제품 470만) **Jetty(부두) : 4선석**(20만, 12만, 8만, 1만 DWT) **총사업비 : 5,170억원**

오일허브 여수사업 조감도





참고2 해외 오일허브 추진배경 및 경과

※ 세계 오일허브의 추진배경과 경과는 역사적/사회적 환경, 지리적 위치, 산업발달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한 유형을 보임

< 미국 걸프만 >

○ 걸프만 연안은 1900년대 초 텍사스주에서 원유가 대량으로 발견된 이후 미국 전역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허브로 발전

- 택사스지역 소재 대규모 정제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동부와 중서부 전역으로 수송하는 내수중심 발전

○ 걸프만 연안 오일허브에서의 석유거래를 기반으로 뉴욕상품거래소(NYMEX), 시카고선물거래소(CME) 등 선물시장이 발달

- 특히 뉴욕상품거래소는 세계 최대규모의 석유거래소로 일평균 거래건수는 370만건 이상, 거래액은 32.8억불 수준임('11년 기준)

< 유럽 ARA (Antwerp, Rotterdam, Amsterdam) >

○ 유럽 ARA지역의 오일허브는 본격적 석유 정제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한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지역에 대한 석유공급 거점으로 발전

- 실제 수요증가에 대응한 물류 원활화를 위해 지역 항만청과 지역 정부 등 관계기관들이 협력, 단계적으로 오일허브 인프라 확충

○ ARA 석유거래를 기반으로 대륙간유럽선물거래소(ICE, 런던소재) 발달

* 일평균 거래건수 260만건, 거래액은 13.3억불 수준('11년 기준)

< 싱가포르 >

○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석유의 수송경로상에 위치한다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, 비교적 짧은 시간안에 정부가 전략적으로 오일허브 육성

○ 총 GDP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5%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(M2000프로젝트)의 핵심 사업으로 주롱섬에 오일허브 건설 추진

- 개발 전담 준정부기업인 JTC(Jurong Town Corporation)가 중심이 되어 공업단지 개발 및 정유, 석유화학 및 독립계 석유저장시설 운영기업 등 유치를 통해 주롱섬을 중계수출형 오일허브로 육성

○ 싱가포르에서는 석유거래 관련으로 장외거래(OTC: Over The Counter) 시장이 발달하였으나, 석유 선물거래시장은 아직 발달하지 못함

- 다만, 싱가폴증권거래소(SGX) 내부의 AsiaClear에서는 장외거래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파생상품 금융서비스가 발달

○ 현재 싱가포르 오일허브의 가격 평가는 석유가격 산정 전문기관인 Platts社에서 제공하는 가격(MOPS 가격)을 기준으로 이루어짐

- 우리나라에서도 석유제품 가격 산정시 기준가격으로 역할